



##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성인경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란의 기독교 법철학자 도이벨트(Herman Doyweerd)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 “창조, 타락, 구속”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라브리공동체의 프란시스 쉐퍼 (Francis A. Schaeffer)가 “형이상학적, 도덕적, 인신론적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대답”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플랜팅가(Alvin Plantinga)가 “신념의 지적구조(noetic structure of beliefs)”로 제시한 것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세 사람의 정의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이해에 매우 유익하며 각각 특징이 있는 말입니다. 도이벨트는 매우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으나 비 기독교인들에게 다소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쉐퍼는 기존의 전통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기독교인들 보다는 비 기독교인들과의 대화에 점층점을 마련해 줍니다. 프랜팅가는 인지구조학적으로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다소 장황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랜팅가(Alvin Plantinga)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들의 종합적인 구조를 ‘지적구조’ 혹은 ‘인지구조’라고 부르고, 그러한 지적구조에 의식적으로 형성되었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었건 혹은 기초적이건 기초적이지않고던 간에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신념들의 종합적인 체계를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플랜팅가의 논의를 김종철이 잘 정리했습니다.<sup>1)</sup>

### 지적구조 (noetic structure)

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들	중요한 신념들	기초적인 신념들
무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무관한 신념들	사소한 신념들	비기초적인 신념들

1) 김종철, 라브리세계관학교 ‘세계관이란’, 참고; Kelly James Clark, 이성예로의 복귀(Return to Reason), 여수론, 186-195.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념들은 의식적으로 믿게 된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경우도 있다. 2) 우리가 믿는 신념들 사이는 완전히 무관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 신념들도 있을 것이며, 논리적인 연관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관련된 신념들도 있을 것이다.<sup>2)</sup>

3) 어떤 신념들은 그 중요성이 커서 만일 그러한 신념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적 구조 속에 있는 나머지 신념들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념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신념들은 그 중요성이 미미해서 더 이상 그 신념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그 지적 구조 속에 있는 다른 신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우리의 지적 구조를 건물로 본다면, 건물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신념이 있을 것이고 그 기초를 덮고 서 있는 비기초적인 신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신념들은 자명하던가 감각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나 논증 내지는 다른 신념들에 기초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공리(axiom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관의 개념 표지

의식적인 신념들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들	중요한 신념들	기초적인 신념들
무의식적인 신념들			비기초적인 신념들

그러나 플랜팅가는 지적 구조의 모든 신념의 종합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세계관의 개념 표지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관은 사람이 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세계관은 무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3) 세계관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 세계관은 사소한 신념들을 배제한 중요한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5) 특히, 기초적인 신념이건 비기초적인 신념이건 모두 세계관을 구성하는 신념이지만, 반드시 중요한 신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sup>3)</sup> 이 세 사람의 어깨를 덮고 서서 저는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2) 김종철의 설명이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신념과 ‘도덕은 절대적이다’라는 신념은 논리적인 관련이 있는 신념인데 비해, ‘햄 버거는 버거킹이 맛있다’라는 신념과 ‘나는 1998년 6월 13일 2시에 결혼했다’라는 신념은 무관계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우리 집에서 돈암동까지는 버스로 15분 걸린다’라는 신념과 ‘스파게티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그라쏘이다’라는 신념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연관이 있다.”

3) 여기에서 ‘중요한 신념’이란, 그 신념이 없다면 다른 신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김종철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도이벨트는 성경의 체계를 따라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신념을 중요 신념으로, 제람 바즈는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 종말(영광)에 관한 신념을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념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사이어는 신, 인식론, 형이상학, 인간학, 내세, 역사, 윤리학에 걸친 7가지의 질문에 대한 신념이 세계관의 내용이 되는 중요한 신념이라고 하고 있고, 윌쉬와 미들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간학, 형이상학,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을 다루면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도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으로 생각된다. 나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요 신념으로 들고 싶습니다. 1)신학적 신념, 2)형이상학적 신념, 3)인식론적 신념, 4)윤리학적 신념, 5)인간학적 신념.” 김종철, 라브리세계관학교 교안, ‘세계관이란’에서

## 1.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의 사고 체계를 갖는 것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마음”이란 말은 ‘감정’, ‘의지’, ‘생각’을 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사고방식’, ‘생각’, ‘지성(知性)’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 사도가 사용한 ‘프레네오(froneho)’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빌립보서 2:5)라는 구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음을 품다(pronehisdo)”는 말은 심적 ‘훈련을 하다’, 즉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혹은 집약적으로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23; 로마서 14:6; 빌립보서 1:7 등에서는 주로 ‘생각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해석하기를 “이 마음은 단순히 사고방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내적인 성향과 기질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기와 소원을 포함한다.”<sup>4)</sup>고 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본래 하나님이지만 종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그런 사고방식, 혹은 그분의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둘째,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디아노이아(dianoia)’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부탁한 베드로의 유명한 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prepare your minds for action)”(베드로전서 1:13)라는 구절에 사용된 말인데, 감정이나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고’, ‘상상’, ‘이해’를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을 앞두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 혹은 “성령을 체험하라.”고 말하지 않고, “깊은 생각”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 3:1-3) 1)“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마음을 일깨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녹슬기 쉬운 생각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가지도록 자극 한다.’는 말입니다. 2)“기억하게 하려 하노라.”이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묵혀두고 있는 성경, 즉 선지자들의 예언과 명령을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3)“이것을 알지니”라는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말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그 정체를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속 사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누스(νοϋς, noos)’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네 마음을 새롭게 하여”(로마서 12:2)라는 말씀에 사용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지능’, ‘생각’, ‘지성’이란 말인데,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능(the faculties of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혹은 ‘지적 기능(the intellectual faculty)’을 말합니다. 바울 신학에서 감정이나 의지만 아니라 지성이 포함된 전인격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로마서 1:21-3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로마서 3:21-9:1),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헌신하

4) Oswald Sanders, Consider Him(그를 생각하라), 김용희역, 성문출판문고, 10.

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그 사람은 몸만 아니라 ‘생각과 지성’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로마서 11:34-12:1,2)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만 아니라 정치, 봉사 등 생활 전체가 변하려면 먼저 ‘마음’ 즉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기독교인의 생각과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10번 이상이나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에서 마음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1:28)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8:6)

“누가 ‘주의 마음(the mind of the Lord)’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11:3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

## 2.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분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도키마조, 분별하다(dokimazo)’는 말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발견 한다.’, ‘찾는다.’는 말인데, 영적 분별력 혹은 기독교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본래 ‘분별하다’는 말은 ‘합당하다’, ‘연단하다’란 말과 같은 그리스어 뿌리인 ‘도키모스(dokim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연단 받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sup>5)</sup> 루이스(C. S. Lewis)는 “상식이 분별력과 같은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멈추고, 연단된 성품과 변화된 마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양심에 거리는 짓을 하지 않는 것,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이 있고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 기독교적 가치 체계, 규제 신념, 분별력, 영적 통찰력, 영적 신념 체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참되다.’는 것이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는 것이며, ‘온전하다(teleios)’는 것은 ‘오류가 없이 완전하다.’ 혹은 ‘미덕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도나 꿈이나 환상, 사람들의 조언이나 환경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며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5) 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마, 258-261.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6,17)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성경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아는 사고 작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이 인간적 사고방식이나 이성적 사고방식과는 대비되는 특별계시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sup>6)</su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이란 말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축을 성경 계시에 두고 사색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성경 계시에 의존하는 사색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3.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는 비판정신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리적인 의미의 ‘세상’도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의 시대도 아닌 다분히 가치관적이고 사상적인 ‘이 시대(this age)’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2)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정신을 말하며, 성경적으로는 “올 세대(the age to come)” 즉 하나님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이 특징을 이루는 이 시대(this age)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각종 종교 사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단과 문화적 신비주의, 마르크스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탈 현대주의, 노장 사상, 몸 철학 등 온갖 괴담론들이 어제 떴다가 오늘 사라지고 있는 ‘시대정신(자이트가이스트, zeitgeist)’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정신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무쌍(變化無雙)입니다. 시대정신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다.”고 잘 지적 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시대 정신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고린도후서 10:5) 시대정신은 그 배후에 언제나 사탄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각종 사상과 세계관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시대정신을 “조금만 조심하라.”고 말하거나,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못 본채 내버려두라.”고 말하거나, “대충 부수라.”고 말하지 않고, “파하라(kathaheeresis, destruction 혹은 demolition)”, 혹은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현대 학술 용어로 말하면 ‘비판하라, criticize)’는 말입니다.

악한 시대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기독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어책은 비판정신을 가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톰 라이트도 그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현 시대의 세력에 대한 방어책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방식,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teleios)’ 뜻에 합당한 생활방식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7)</sup> 만약 기독인이 시대정신을 비판하지 않으면 시대정신이 기독인을 파괴할 것입니다.(고린도후서 10:8)

만약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대”의 정신적 사조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브래드쇼가 잘 지적했듯이, “유대인의 영혼에 바벨론식

6) 박윤선, [성경신학], 영음사, 11-19.

7) 톰 라이트, 그리스도인의 미덕, 포이에바, 258.

두뇌를 갖고 사는 것"과 같으며 예수님의 가슴에 공자나 석가의 머리를 달고 사는 것과 같은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시대의 유행하는 시대정신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정신과 거꾸로 생각하며 사는 것, 그런 비판정신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플랜팅가 식으로 말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신념과 그렇지 못한 신념을 구분할 줄 알며, 중요한 신념과 사소한 신념을 구분할 줄 아는 비판력을 말합니다.

#### 4. 변화된 지식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점진적으로 변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닮는 새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로새서 3:10)는 말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2에서는 “오직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변화된 지성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의 “변화를 받아(metamorfoosde)”라는 말은 ‘성격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말로서 “이 시대”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뒤집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엄청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머레이는 말하기를, “성화(sanctification)는 인간의 의식의 중심, 즉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이다.”<sup>8)</sup>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도(聖徒)’가 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진 정신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회개(metanoia)’라고 하는 말은 ‘바꾼다(μετα, meta)’와 ‘생각(νοῦς, nous)’의 합성어로서 ‘생각을 바꾼다(to change one's mind)’는 말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회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로 밀러(Darrow Miller)는 회개하는 것과 사고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한바 실제의 본질, 인간의 본질과 그의 반역,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물들을 보는 방식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실제에 대한 그분의 정의,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분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자들 천 명을 합해도 남자의 새끼발가락을 하나 겨우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런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득문득 남성중심주의 혹은 남아선호사상이 터져 나왔기 때문

8) J. Murrey, Romans. 38-39.

9) Darrow Miller, ‘네 온 지성을 다하여’, 라브리펜지 제27호

입니다.

사실 저도 남자인지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므로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지식, 즉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는 변화된 생각을 하며 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5. 삶의 지혜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 혹은 전략적 사고(思考)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번도 세계관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세계관 책을 수백 권 공부한 사람보다 몇 배나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생을 멋있게 사신 장로님들을 압니다. 그 분들은 돈 벌고 쓰는 것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회사를 다스리는 것 등에 얼마나 지혜롭고 예술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셨든지 그런 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능력 있는 세계관,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분들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지만 절약과 부지런함이 몸에 배인 분이었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광지에서나 미국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물을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는 법이 없고 필요 없는 전등을 켜 두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진짜 기독교 세계관대로 사는 분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웨퍼도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의 대가가 가진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구유를 낮추어 양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모든 동물이 와서 먹을 수 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언 3:14,15) 히브리어로 ‘지혜’란 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샤칼(saw-kal, 창세기 3:6 선악을 알다, 여호수아 1:8 형통하리라): ‘신중하게’, ‘이지적으로’, ‘지혜롭게’, 2)‘호크마(khok-maw, 잠언 1:2, 8:11): ‘공교한 지혜’, ‘재치’, 3)‘레브쇼미아(leb-shomeah): ‘들을 수 있는 마음’ 혹은 ‘순종하는 마음’, ‘이해하는 지각’. 이 세 가지 중에 솔로몬이 일 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지혜는 세 번째 ‘레브쇼미아(leb-shomeah, 열왕기상 3:9)’라고 합니다.<sup>10)</sup>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24) 잠언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인화된 지혜 숙녀 혹은 지혜 여인(personified Lady Wisdom”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합니다.<sup>11)</sup> 예수님은 잠언에서 예언하고 상징된 바로 그 “의인화된 지혜 숙녀”였기에, 지혜 그 자체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셨습니다(one greater than Solomon, NIV)”(마태복음 12:42).

패커(James Packer)는 신학적으로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혜란 지고(至高), 지선(至善)의

10) 이요엘, 고교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 평단, 88.

11)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96. “잠언에서 메시지의 내용이 그 메시지를 내는 인격과 동일시되었듯이, 요한복음도 메세지를 내놓는 인격을 그 메시지의 내용과 동일시하여 제시한다.”

목표 및 그 목표를 성취하는 분명한 수단을 볼 줄 아는 능력과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지혜는 지식 높음이나 탁상공론이나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지혜는 인간이 부딪히는 매일 매일의 삶의 문제에 대해 바른 대답과 설명을 주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능력, 즉 이것을 경영학적으로는 “전략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성령의 생각이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카펫을 살까요 말까요?”, “차를 살까요 말까요?”와 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질문을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도와주고 분명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지 오래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더구나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분이 이런 전화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아무리 각종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젓먹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지각(知覺)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도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브리서 5:12-14)

바울 사도는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the sinful mind)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로마서 8:5-7)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sinful minds set)이며 둘째는 성령의 생각(spiritual minds set)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 이성의 두 가지 성격 중에 이성이 제한적이고(limitation), 타락했다(corruption)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perfection), 하나님의 법(율법)과 일치하기(coherency)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며 장차 영적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화려하나 성령의 생각을 합니까?



만약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으나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당장은 교회에 매우 유익을 끼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의 생각을 모르고 그 분의 능력과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 7.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이다

참된 자유는 '진리'에서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유의 출처는 진리이며, 자유의 독특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자유는 수행이나 일탈이나 금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지 노력이나 수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테투스(Epicretus, 스토아철학자)가 "제우스가 나를 자유케 했다."란 말을 인용했거나 변형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치더라도 그가 말한 '진리'라는 것은 '관념적인 진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상상입니다.<sup>12)</sup>

여기의 "진리(*αληθεια*, alledeia, 라틴어 *veritas*)"는 문자적으로는 '믿을만함', '신뢰할 수 있는', '진실', '참된', '덮여 있지 않는 것', '드러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며, 한자말은 '참된 이치' 혹은 '명중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그리스인들이 그토록 찾고 찾던 "말씀(*λογος*, *logos*)"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 분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2)그 분의 계시, 즉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

어느 것을 의미하던 이것이 진리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참 진리이시며 그 분의 계시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sup>13)</sup> 참 진리는 관념적인데 머물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참 진리는 인격적이며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권력을 해체하거나 진리를 일종의 게임으로 치부하는 일탈 행위도 결코 아닙니다. 참 자유의 출처는 오직 성경 계시의 핵심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sup>14)</sup> 이런 진리는 세상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발을 멈추어 서야 곳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부르거나, 형이상학적, 도덕적, 인신

12)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CN)*, Eerdmans, 456

13)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3, pp.874

14)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Eerdmans, pp.266-269

론적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대답, 혹은 기독교적 신념의 지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1)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2)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 3)시대정신을 꿰뚫어 보는 비관정신, 4)예수님을 믿고 바뀌거나 변화된 지식, 5)삶의 지혜, 6)성령의 생각, 그리고 7)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밖에도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 가지 다른 개념과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